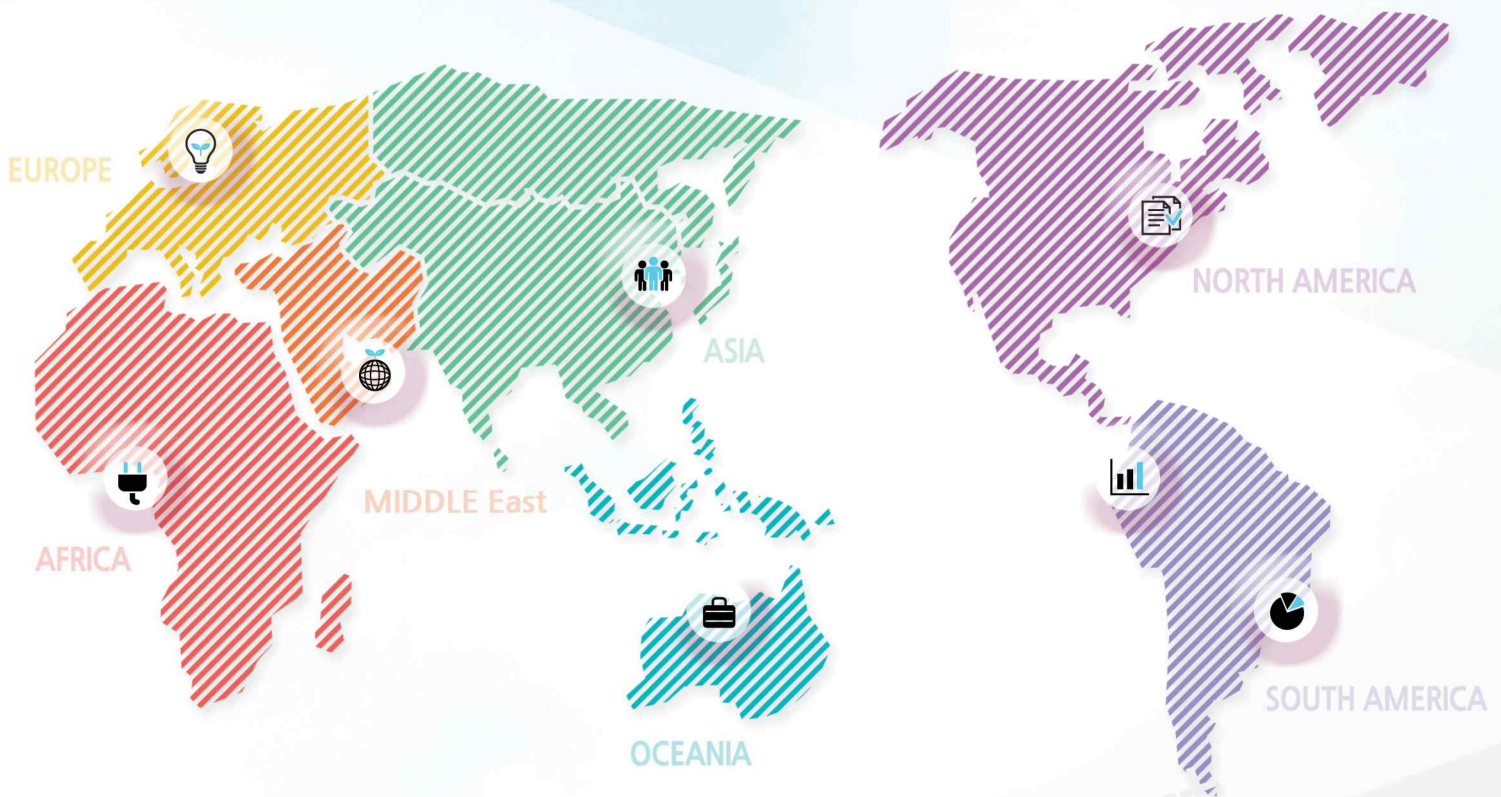




미얀마 총선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

CONTENTS

목 차

요 약 / 1

Ⅰ. 미얀마 총선 결과 및 주요국 반응

- 2 | 1. 총선결과
- 3 | 2. 미얀마 및 주요국 반응

Ⅱ. 향후 경제정책 방향전망 / 6

Ⅲ. 우리나라 대미얀마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9 | 1. 현황
- 10 | 2. 기회요인
- 11 | 3. 위협요인
- 12 | 4. 미얀마 산업별 현지 전문가 인터뷰
- 17 | 5. 미얀마 기업투자국 국장 인터뷰

요 약

25년 만에 이루어진 미얀마 자유 민주 총선의 결과,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하였다. 헌법상 군부에게 할당된 의석을 포함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면서 NLD의 단독집권이 가능해졌다.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집권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 역시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이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총선에서 승리하였으나, 미얀마 헌법상 피선거권이 없어 2016년 대선 후보로의 출마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번 미얀마 총선에 대해 주요국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국 백악관은 미얀마 총선을 ‘민주적 전환으로의 중요한 도약’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미얀마에 대한 GSP 적격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검토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3년 대부분의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한 EU는 총선을 ‘민주화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하였다. 향후 EU-미얀마 간 양자투자협정(BIT) 체결이 가시화될 경우, EU기업들의 활발한 미얀마 진출이 전개될 전망이다.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으로서 ‘법률에 의거한 미얀마 선거’의 순조로운 거행을 축하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기존의 교류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5년 미얀마에 티라와경제특구(SEZ) 개발했던 사례와 같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특징적이다.

2013년 이후로 미얀마 실질 GDP 성장률은 8%대의 고속성장세를 이어왔으며, 2015년에는 8.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¹⁾ 그러나 단기 고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8%에 이르는 등의 문제는 향후 출범할 신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NLD는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 재정 관리 시스템, 지역별 복지 수준 평등화 방침 등 ‘친서민적’ 경제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그동안 지연되어온 각종 경제입법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외국민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新투자법이 도입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NLD의 정책방향이 우리 기업들에게 미칠 산업별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자동차부품) 고속도로 확장 및 자동차법 개정으로 자동차 및 부품 수요 증대
- (섬유, 의류) 노동자 임금인상이 우려되나, 미국 미얀마 GSP 혜택 부여 기대
- (건설자재) 부동산시장 호황 및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으로 건설자재 수요 확대
- (생활소비재) 초기 진출비용 극복 시 한류 마케팅 활용 가능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미얀마 경제 개혁·개방 가속화될 경우 국내기업의 진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나, 외국인투자가 증가로 인한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5-10.

I 미얀마 총선 결과 및 주요국 반응

1. 총선 결과

□ 투표 결과

- 2015년 11월 8일 치러진 미얀마 총선 결과 수치여사가 이끄는 NLD(민주주의 민족동맹당)가 금번 선출직 491석 중 389석(상원 135석, 하원 254석)을 차지하면서 단독집권이 가능해짐.¹⁾
 - 집권당 USDP(통합단결발전당)는 491석 중 41석(상원 12석, 하원 29석) 얻음
 - 총선 선출직 491석과 군부에 할당된 166석*을 합친 전체 657석 중 NLD가 59%를 차지하여 안정적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함.
 - * 미얀마 의회는 664석(상원 224석, 하원 440석)으로 구성되며, 헌법상 25%(166석)가 군부에 할당됨.
 - * 이번 총선에서는 소수민족 저항 세력과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7곳 선거구에서 투표가 진행되지 않아, 전체 657석으로 상하원 구성됨.
- 25년 만에 실시된 ‘자유 민주 총선’ 으로서, 2011년부터 시작된 미얀마 개방이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높은 국내외적 관심을 받음.
 - * 1990년 총선 : 수치여사 당이 82% 의석을 얻자 군부가 선거 결과를 무시
 - * 2010년 총선 : 금번 총선이 불공평할 것이라는 이유로 NLD가 총선 보이콧함.

□ 정권 구성 및 대선 전망

- 미얀마 정권은 NLD 단독구성이 가능해졌으나, 정치 경험 부족으로 군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기존의 NLD당의 투표율이 낮을 경우 소수당과 협력할 것으로 보였으나, 현재 거론 되는 점이 없음.
- 미얀마 대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는 헌법상 피선거권이 없음*. 현재 헌법 개정 가능성 여부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상·하원에서 75%이상의 동의 및

1) 2015.11.20. 선거관리위원회(UEC) 99.6% 개표 결과 기준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을 해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음.

- * 헌법 규정상 아웅산 수치 여사는 배우자 및 자녀들의 국적문제로 피선거권 없음
- * 미얀마 대선은 상원, 하원, 군부에서 각 1명, 총 3명을 후보로 추대하여 간선제로 진행됨

- NLD당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 대선 불출마 할 경우 유력 출마 후보로 윈테인, 한타민, 온카잉, 난윈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혹은 USDP 소속으로 친 NLD 성향을 가진 뚜라쉐만 하원의장의 출마의 가능성 있음.

2. 미얀마 및 주요국 반응

□ 미얀마 현지 반응

- (USDP) 선거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분위기
 - 테인세인 대통령 : 총선에서 승리한 당에게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힘.
 - 뚜라쉐만 하원의장 : NLD당이 이길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였으며, NLD 승리를 축하의 메시지를 전함.
- (NLD) 총선 압승에도, 수치 여사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수치 여사는 총선 후 현 최고 권력자 3인(테인세인 대통령, 뚜라쉐만 하원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질서 있는 권력이양을 위한 회담을 제의하였으나, 대통령 측에서 '선거위원회가 선거 결과에 관한 모든 불만 접수권을 해결하기 전까지 NLD와의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
- 현지 전문가 및 여론
 - 유권자 명부 등록 누락 등이 미비점이 있었지만, 큰 혼란 없이 실시되어 이번 총선이 '민주화의 진전'을 보여준다고 평가
 - 개표가 연장되는 점에 대해 군부의 개표 방해공작 의혹이 제기됨.
 - NLD가 단독집권하게 되더라도, 군부나 USDP의 협력 없이는 빠른 정권 안정이 어려워질 것이란 의견 다수 존재
 - 소수민족 무장 세력과의 협력, 종교대립 완화 등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안정을 이뤄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 주요국 반응

- (미국) ‘민주적 전환에의 중요한 도약’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제재 완화에 대해 무역대표부와 국무부간 의견 차이 다소간 존재
 - 백악관 대변인은 헌법상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이번 총선을 민주적 개혁 절차의 중요한 도약이라고 평가함.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웅산 수치 여사와 테인세인 대통령에게 “이번 선거와 새로운 정부의 편성은 버마의 민주적 전환과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에 대한 노력에 중요한 도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무역대표부(USTR)는 미얀마의 일반특혜관세(General System of Preference, GSP) 혜택 복원* 검토 재개를 발표했으나, 미국 국무부는 대미얀마 제재 완화 결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

* 미얀마 GSP 혜택은 1989년 민주화 시위 이후로 중단됨.

- ☞ 트레버 킨케이드(Trevor Kincaid)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11.10) : “USTR의 주도 아래 버마(미얀마)의 GSP혜택 적격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검토를 재개했다.”
- ☞ 다니엘 러셀(Daniel Russel)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11.9) : 선거에 대한 평가와 미국 제재 완화 검토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발언

- ‘12~’13년 대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일부 미국 대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하였으나, 경제교류 활성화 여부는 남은제재 완화*가 관건임.
 - * 경제제재 현황 : 재무부의 제재대상 리스트(SDN List)에 등재된 약 115개의 미얀마 관련 개체·개인과의 거래 및 투자 금지, 제재대상 금융기관과의 금융서비스가 불가, 미얀마産 보석류의 수입이 금지, GSP 특혜대상 제외
- (EU) ‘민주화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미얀마의 경제발전을 위해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 밝힘.
 -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 및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미얀마 선거를 평화적 선거라고 평가하면서, 모든 참여자들의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을 강조함.
 - 2013년 EU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는 ‘무기 및 내부 소요진압장비 금수조치’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었음. * 미얀마 GSP 2013년 7월 복귀

- 향후 EU-미얀마 양자투자협정(BIT)이 체결될 경우, 섬유·의류 등 노동집약산업을 중심으로 EU기업의 대미얀마 투자진출이 매우 활발해질 전망이다.
- (중국) ‘법률에 의거한 미얀마 선거’의 순조로운 거행을 축하한다고 발표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월 11일 미얀마 총선에 대한 기본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의 미얀마를 활용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양국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 지속 및 향후 발전을 희망한다고 답변함.
 -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교역국 및 최대 투자국으로서, 미국의 對미얀마 영향력 확대 견제 속에서 미얀마 투자를 지속할 전망이다.
 - * 중국은 미얀마 FDI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됨
 - 특히, '15년 6월의 시진핑-아웅산 수치 간 회담은 총선 이후 양국 간 관계가 크게 변할 가능성이 낮으며, 기본적인 경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함.
- (일본) ‘민주화의 진전’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부정된 것은 아니라는 전망 속에 일본 기업의 미얀마 투자 확대가 예상됨.
 -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10일 오전 국무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미얀마의 선거를 “민주화 진전을 향한 중요한 한발이기에 환영”한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 역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발표함.
 - 미얀마 경제특구 개발* 진출, 엔 차관, 무상자금협력 등 일본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일본 기업의 미얀마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 일본·미얀마 합작 경제특구인 티라와경제특구(SEZ) '15년 9월 설립 완료
 - 미얀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며, NLD 역시 현 정권과 반대되는 경제정책을 내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존재 다수임.
 - 그러나 농업 보호 및 에너지 개발 방향 전환 등의 정책 변경 시 파생될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함.

□ 경제현황 및 당면과제

- (현황) 2015년 미얀마의 실질 GDP가 8.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2013년 이후로 8% 이상의 고속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 13/14년 8.4%, 14/15년 8.5%, 15/16년 8.4%³⁾
 - * 미얀마 회계연도 : 전년 4월부터 당해 연도 3.31월까지
- 주요 성장 동력으로는 에너지 및 통신 투자 확대, 건설 및 서비스 호황세 지속, 기초원자재 수출 증가, 관광객 증가, 외국인투자 증가 등이 있음.
- (당면 과제) 단기간 고성장에 따른 부작용 2015년 인플레이션이 8%에 이르러 향후 출범할 신정부는 고물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임.
 - 공공부문 급여 인상, 전기료 인상,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무역적자 확대, 정부의 제한된 거시경제 관리 능력 등이 주원인임.

□ 경제정책 기본 방향

- (대내) 국민 참여 확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친서민적’ 정책 지향
 - 국민 참여를 통한 예산 결정으로 개방적인 공공 재정 관리 시스템 도입 공약
 - 농업, 축산업, 어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산업위주의 진흥 정책을 추진
 - * 동 분야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외 회사들과의 합작하여 개발 예정
 - 노동자 단체 결성을 허가하고, 강제 노동 금지법, 국제노동기구(ILO) 제도 수준의 노동 환경 개선을 주장함.
- (대외) 외국인직접투자와 국제기구 지원을 통한 현지 인프라를 개발
 - 중국, 인도, 태국 등 주변국과의 국경지역 도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 지역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력·통신·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예정
 - * 미얀마 에너지부, 2조 규모의 Thanbyarkan 연료 정유 공장 설립 프로젝트 준비 중
 - * 미얀마 전력부, 발전분야 생산 설비 확충에 281억, 송전분야 송배전 건설에 22억, 배전분야에 71억 달러 등 총 374억 달러 투입 예정

3)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5-10.

□ 경제정책 세부 공약

구분	공약내용	예상효과
노동정책	▶ 평등하고 넉넉한 월급을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 ▶ 실업 문제 해결 ▶ 노동자 조직, 단체 결성 허가 ▶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법 개정 ▶ 국제노동기구(ILO)의 제도에 맞게 노동 조건 개선	○ 노동자 우선 복지 정책으로 인해 노사 분류 발생 가능성 상승
산업정책	▶ 최단기적 경제 잠재성을 가진 농축산업 집중 개발 · 소유권 인정 등 관련 법률 명확화 및 현대화 · 인재, 연구(자연재해, 환경오염 등) 및 기술 개발 · 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외 회사들과의 합작 · 생산 증가 및 수출 확대 ▶ 컴퓨터·IT 등을 활용한 고부가 기술집약적 산업화 촉구	○ 농업 축산업의 발전으로 1차 산업의 증가 및 관련 비료 및 사료, 관련기계의 수입 증가 ○ 경제특구(SEZ)의 활용도 증가 및 전력 기반시설 확충의 증가가 예상.
프로젝트·인프라 구축 정책	▶ 사회기반시설 및 시장 제도 개선 ▶ 개발 프로젝트 결과에 신중, 피해 주민 보상 ▶ 비영리 사회복지,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관련 세금 면제 ▶ 추가적인 댐 건설 지양, 기존 댐과 수력 발전소 개선 ▶ 태양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등 개발 ▶ 지역 인프라 개선 및 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행 ▶ 양곤, 만달레이 등 주요도시 공동 운송시스템 개선 ▶ 공원, 운동장 등 개선 및 설립	○ 기존 정부의 프로젝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신규 프로젝트의 창출이 예상 ○ 지연되었던 프로젝트 사업 또한 진행될 것으로 예상
복지정책 (교육, 건강)	▶ 교육부분 투자 확대를 통한 인력자원 개발 · 초등 교육 무료화 · 초·중·고등·대학교 전국 지역 및 지방에 설립 · 제 3차 교육(Tertiary Education)에 과학 기술, 미술 등의 교육제도 개선	○ 의료, 교육에 대한 정책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복지 상승 ○ 외국기업과의 의료

	· 교육 관련 연구 프로젝트 진행 · 초·중·고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 · 교육 관리 및 정보 시스템 체계화 진행 · 도서관, 교육 센터 등 전국에 설립 ▶ 건강부분 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 건강 보호 및 전염병 예방 프로그램 진행 · 건강 보험 및 서비스 개선 · 의과 교육, 치료법, 의약품 등의 기술 향상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합작 프로그램 연구 진행 · 사립 병원 설립 하고 HMIS(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계획 및 확립	교육 분야의 합작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됨.
신중한 재정운영 통화·재정 건전성 확보	▶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자금 조달 규칙 규정 ▶ 개방된 공공 재정 관리 시스템 확립 ▶ 재정적자, GDP 5% 미만으로 유지(화폐 공급 절제) ▶ 국영기업의 민영화 ▶ 한계세율 조정 및 조세기반 확대를 위한 신규 조세 수단 도입 ▶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자유화 및 활성화 ▶ 엄격하고 건전한 감독 체계 설계	○ 금융권으로 인해 투자 및 무역업 활발 예상 ○ 조세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불만 상승
작고 효율적인 정부	▶ 법치주의, 재산권 확립 등 기초적인 제도 확립 ▶ 정부 기능 단순화, 작고 효율적인 행정부로 재조직 ▶ 재정연방주의 기제(Mechanisms for fiscal federalism) 개발 ▶ 국민 참여 예산결정방식 도입	○ 경제특구(SEZ)의 활용도 증가 및 전력 기반시설 확충의 증가가 예상.

1. 현황

□ 대미얀마 수출입 현황

- (수출) '15.10월까지 전년 대비 10.8% 감소해 5억 45백만 달러를 기록함.³⁾
 - 산업기계, 수송기계, 직물, 섬유제품, 플라스틱제품 순으로 수출 비중 차지
 -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 증가로 산업기계, 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봉제업 오더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직물 11.7% 감소하였음.
- (수입) '15.10월까지 전년 대비 13% 감소해 4억 40백만 달러를 기록함.⁴⁾
 - 섬유제품, 농산물, 산업기계, 비철금속, 신변잡화 순으로 수입 비중 차지
 - 특히 '15년 10월 기준 산업기계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9%증가하였음.

□ 대미얀마 투자 현황

- (투자액)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신고 누적액(1968~2015.6)은 4,830백만 달러 (전체투자의 1.16%)이며, 실투자액은 2,353백만 달러(전체투자의 0.8%) 차지
 - 2015년 6월까지 약 4100만 달러, 실투자액 약 1억 3400만 달러를 기록해 2012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업종별) 법인 수 기준으로 제조업(주로 봉제업) 및 도소매업의 투자가 전체 70%를 차지. 금액 기준으로는 대우E&P의 가스전 투자(27억 달러)가 포함된 광업이 전체 75% 이상을 차지하며, 운수업 및 제조업 투자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3) K-stat 국가수출입 10월 통계

4) K-stat 국가수출입 10월 통계

2. 기회요인

① 미얀마 법안 개정으로 인한 투자 환경 개선

- 新투자법 도입으로 내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투자법 통합될 예정
 - 민간 소유지 임대시의 정부 허가 생략, IMF 허가 통화로 송금·거래, 현지인 고용 의무가 경감 내용의 법안 개정으로 투자진입장벽이 낮춰질 전망
- 미얀마 중앙은행법 개정 등에 따른 금융 부문 투명성 향상
- 자동차법 및 시행령 발표에 따른 우측핸들 차량이 규제가 예정되어 있어, 좌측핸들 차량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게 긍정적임.

② 미국의 제재 완화

- 미얀마 총선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평가로 GSP 적용할 가능성 높아짐.
 - 미국의 GSP의 관세 혜택이 의류 분야에 우선적으로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 절반 이상이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는 우리 기업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소식임.
- 미국 패트리엇법(애국법) 해제될 경우, 자유로운 달러 송금 가능해질 전망
 - 2012년 이후 미국이 미얀마에 대해 달러 송금에 대한 부분을 극히 제한적으로 해제하였으나, 금번 선거로 달러 송금 가능성 확대

③ 장기·대형 프로젝트 수요 증가

- 선거로 인해 지연되었던 인프라 투자 사업들이 활발해지면서, 현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진행되었던 민생용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대형 프로젝트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전망
 - 운송, 정유, 광물, 송배전, 도로 분에 대한 프로젝트 수요가 있음.
- 기존에 우리 기업이 미얀마 사업에 참가했던 경험을 활용하여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도모해볼 수 있음.

3. 위협요인

① 조세 및 노동 관련 입법으로 인한 비용 증가

- 新조세수단 도입에 따른 상업세 면제 범위 축소,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투자 진출 비용 증가 예상
 - 조세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외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인상될 가능성 있음.
- 노동자 입장의 정책 추진 예상
 - NLD가 노동자 단체 결성 허가, 국제노동기구(ILO) 제도 수준의 노동 조건 개선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노동자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비용 증가가 우려됨.

② 초기 정치 경험 미숙에 따른 정치적 혼선 우려

- 정권 안정이 어려워질 경우, 정치적 혼선이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 관망세가 지속되어 경기 활성화가 요원해질 가능성 상존

③ 국제 메이저 기업과 경쟁 심화

- 아웅산 수치여사의 친미, 친영국적 성향으로 인하여 대형 프로젝트 및 개발권을 서구 국가들에게 집중 부여할 가능성이 있음.
 - 상대적으로 미얀마에서의 기존의 중국 입지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해외 메이저급 기업 진출로 인하여, 소규모 소비재 판매 기업 및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4. 미얀마 산업별 현지 전문가 인터뷰

KOTRA의 미얀마 양곤 무역관 소재지의

바이어, 현지진출 한국기업, 산업협회 관계자와 실시한 인터뷰 결과를 정리함.

* 대미얀마 수출 상위 품목, 미얀마 성장 가능성 높은 산업 위주로 현지 무역관 의견을 종합하여 선정

가. 자동차, 자동차 부품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별다른 위험 요소가 없을 것이며, 도로 확장 및 프로젝트 진행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더불어, 미국의 제재 해제로 수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을 기대함.

☞ 바이어 T社(자동차 유통) 관계자 :

- 전보다 개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국제적 원조를 받게 될 것이라 믿고 있음. 도로 확장 및 프로젝트 증가로 자동차 및 관련 제품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별다른 위험요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

☞ 현지진출 한국기업 L社 관계자 :

- NLD의 승리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
- 현재까지 일본의 로비로 오른쪽 핸들 수입재제조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으나, 이번 야당의 승리로 그런 부분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
- 현재 달러 거래 제한이 어려모로 수출입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NLD 당이 승리하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교체된다면 미국에서도 달러거래 제재 등의 엠바고를 해제할 것으로 기대
-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정권이 이전 된다면 한국과의 투자, 교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관련 산업협회 관계자 S :

- 정권이양이 있을 내년까지 지켜봐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음
- 新정부는 자동차 시장을 안정화 시킬 것으로 예상
- 별다른 위험 요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

나. 섬유, 의류

- 민생에 민감한 NLD가 임금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섬유 의류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서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함. 한편, 현지진출 우리 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아웅산 수치여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점이 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봄.

☞ 바이어 O社(섬유 유통) 관계자 :

- NLD은 USDP과 연합하여 섬유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부문을 개방할 것.
- 위험요소로 NLD은 노동자의 시각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공장들은 자사의 노동자들을 다루는 것을 조심하고 있는 편이며, 노사 문제가 해소 안 되면, 미얀마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현지진출 한국기업 G社 관계자 :

-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진출하였으나, NLD집권 이후 노동정책이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정권 교체에 따라 노동자들이 현 노조보다 더 큰 조직체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

☞ 현지진출 한국기업 I社 관계자 :

- 긍정적인 방향에서 세계 각국에서 경제원조가 늘어나며 도로망 구축, 부동산 안정화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일들부터 개선해 나갈 것임
- 부정적인 방향으로 현재 NLD는 정책의 일정한 방향이 없는 것 같음
- 봉제 쪽으로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

☞ 섬유, 의류 관련 산업협회 관계자 K :

- 외국기업의 투자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입 및 생활 여건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됨
- 서방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 건설자재

- 외국인투자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 호황이 예상되나,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로 외국계 대형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이 늘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함.

☞ 바이어 M社(건설제품-엘레베이터) 관계자 :

- NLD의 승리가 미얀마 일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외국인 투자의 증가로 예전보다 더 빠른 속도의 부동산 시장 호황이 예상
- 다른 위협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

☞ 현지진출 한국기업 P社 관계자 :

- NLD당 승리로 향후 미얀마에 부여된 미국 경제제재가 완벽히 해제되어 대외적인 여건이 대폭 향상 될 것으로 예상
- 경제제재가 풀려감에 따라 다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큰 폭 상승세를 그릴 것으로 예상되어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그에 맞춰 외국계 대형 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하면서 아직까지 미얀마에 꺾지 못하였던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건설자재 관련 산업협회 관계자 W :

- 야당이 이겼으니 많은 해외 투자들이 들어와, 미얀마 경제 및 빈부격차를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
- 정권을 이양한 후 더 많은 해외 투자, 정부 프로젝트, 수입 및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 미국 측에서 많은 관심 및 투자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됨.
- 많은 기회나 위협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현재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 빈부격차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한 후 건설업은 잘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됨.

라. 생활소비재

- 현지진출 한국기업은 초기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향후 전체적으로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함. 한국의 대 미얀마 교역 및 투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한류에 편승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시장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전망.

☞ 생활소비재 M社(건강·미용용품 유통) 관계자 :

- 불법유통 되는 제품의 감소로 유통망의 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별다른 위협요소는 없음

☞ 현지진출 한국기업 N社 관계자 :

- 정권 이양 이후 처음 집권하는 민주정당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예상
- 대외 활동 및 의존도를 높여 전체적인 시장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장이 확장되며 판매량에도 큰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

☞ 생활소비재 관련 산업협회 관계자 A :

- 경쟁이 심화되어 유통망 형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심화로 인해 서양의 대형 소비재들이 많이 진출한다면, 아시아 계열의 기업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마. 기계

-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의 효과로 인한 경제 상승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NLD당의 정치적 미숙함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어 정치·경제상 혼란을 예상함. 현지 바이어의 경우 이 혼란은 장기화 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현지진출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혼란의 장기화로 대기 중이던 투자들이 다시 연장되어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바이어 A社(기계 수입) 관계자 :

- NLD가 승리하였지만 초반에는 정치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권장악이 약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의 완화로 미국계 기업이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는 여전히 발전해갈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위협요인도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초기에는 약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발전되는 미얀마를 역주행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

☞ 현지진출 한국기업 M社 관계자 :

- NLD 는 정치적인 경험이 없어 집권 여당이 될 경우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나 오히려 정치/경제상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 NLD 집권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 되면 관망 중이던 투자가 보류되어 외국인투자를 이끌어 내는 데 방해 요소가 될 것.

☞ 기계 관련 산업협회 관계자 A :

- NLD 측이 승리하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3월 달에야 정권을 이양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해 판단하기에 어려운 편임.
- 정권 이양 후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 경제 개발을 잘 이끌어낼지 확신이 없으며 정치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많은 투자가 들어와 국내총생산량(GDP)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됨.
- 아웅산 수치 여사가 많은 해외투자 및 해외 수출량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면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가 생겨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됨.

5. 미얀마 기업투자국 국장 인터뷰

총선 후 미얀마, 기업투자가 유망한 5가지 이유

양곤무역관, '15.11.11

KOTRA 양곤무역관은 '15.11.11(수) 선거 후 미얀마의 급변하는 투자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미얀마 외국인 투자를 총괄하는 DICA(기업투자국) Aung Naing Oo 국장을 초청, 한국투자진출기업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 동 국장이 밝히는 미얀마 투자여건과 주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함.

□ 신정부 출범 후 한국기업의 기존 투자는 철저히 보호될 것이며, 투자여건 개선으로 신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

① 신정부 역시 경제발전과 무역투자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것

- NLD의 공약에 경제 발전정책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제 발전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
-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와 무역이 중요하며 특히 투자는 관련기업뿐 아니라 미얀마 국민 전체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 배려될 것

② 외국인투자를 위한 법제(Legal Framework)도 정비될 것

- 정권의 향배와 무관하게 외국인투자법과 국내 투자법을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자마자 통과될 것
- 新 통합투자법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투자자 보호조항들을 강화
 - * 예 : 외투법인의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대한 관세유예를 현행 3년에서 무제한으로 개정
- 회사법도 2016년 개정될 예정으로 기업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제도도 강화될 예정

③ 경제자유구역(SEZ)의 개발

- 델라와 SEZ이 완료되었고, 다웨이와 짜욱푸 SEZ도 개발 진행 중
- 다웨이는 태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면서 아세안에서 중동, 인도, 아프리카로의 새로운 교역로 역할을 맡게 될 것
- 일본의 다웨이 프로젝트 참여에 이어 다웨이 심해항 개발로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싱가폴 역시 프로젝트에 참여할 전망

* 참고 : 일-메콩포럼('15.7월)시 일-태국-미얀마 간 다웨이 개발 MOU 체결

- 짜옥퓨는 중국 서남부 지역에 인도양 접근 통로를 제공할 것

④ 국가 간 투자보장 협정 체결 (한-미얀마 투자협정도 체결 완료)

- 2016년~2017년 투자 보호 협정이 EU 등 많은 다른 국가들과 체결될 것

* EU와 3차 협상 진행, 2016년 최종 체결 예상

- 홍콩, 러시아, 캐나다 등과 투자협정도 진행될 것

⑤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가능

- NLD의 승리는 이미 검토 중인 GSP 제공은 물론 미국의 제재를 없애는 계기가 될 것

- 미국의 제재 해제는 그간 미얀마 투자를 가로막은 금융 분야에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되며, GSP 도입으로 미얀마 진출기업의 대미수출 여건도 개선 될 것

□ 주요 질의응답

Q1. 신정부 구성에 대한 일정 등에 대한 문의

- 차기 국회는 1월 8일 이전(60일 이내)에 소집되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음
- 1월말 또는 2월초에 차기 정부의 각료 선정될 것으로 보임.
- 2월에 장관의 선정이 끝나면 주요 부처 차관, 국장 등의 인선이 완료되어 4월부터 신 정부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

Q2. 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SEZ 개발 가능성 문의

- 한국기업을 위해 별도 SEZ를 만드는 것은 정부차원의 협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여 INDUSTRIAL ZONE 방식이 보다 현실적
- 개정된 외투법에 따르면 SEZ와 유사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됨.
- 필라와 SEZ의 경우도 미얀마-일본 컨소시엄이 개발하지만, SEZ에 입주한 일본기업은 30%임. DAWEI도 태국-미얀마가 진행하지만 태국 기업의 비중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임.

Q3. SEZ 법과 외국인투자법 중 보다 유리한 것은?

- 수출기업에게는 SEZ법보다 유리하며, 내수시장까지 고려할 경우 외투법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음
- 따라서 내수 유통과 관련된 기업은 외투법의 보장을 받는 것이 낫을 것

Q4.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비하여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인센티브 늘릴 계획 있는지?

- 신 외투법에서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음.
- 미얀마의 지리적 입지나 경제제재로 인해 미얀마 투자에 대해 조심스러워하고 있으나 한국기업들은 1980년대부터 투자를 해왔음. (대우/포스코 등)
- 과거 일본기업들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지금은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진출 장려에 힘입어 매우 역동적으로 활동중
- 태국도 매년 4회 정도 대규모 기업 방문단을 파견하여 미얀마 투자를 장려
- 미얀마 정부와 한국 정부가 협력하여 미얀마에 많은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 한국 기업의 진출도 늘어날 것임.

Q5. 군부 산하의 지주회사인 MEHL과 MEC가 미얀마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신정부에서 이 두 기관의 입지가 유지될 것인가?

- 유지될 것으로 보임. 미얀마의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신정부 역시 군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됨

Q6.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SDN 리스트 상의 기업에 대한 처우는?

- 정부가 세금이나 다른 부문에서 SANCTION 기업을 다르게 대할 이유가 없음. SANCTION 기업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할 것임.

Q7. 무역업이 외국기업에 언제 허용될 것인지?

- 현재도 제약 및 전자재 등 일부 부문에서의 외투법인의 무역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봄

Q8. 경제개발을 위해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은?

- 모든 교육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기존 정부 정책인데, 이것이 바뀌어야함.
- 1962년까지는 인근 지역에서 유학을 많이 올 정도로 미얀마 교육의 질은 매우 좋았음
- 현재 PRIVATE EDUCATION LAW의 초안이 새로 만들어져서 교육부문의 외국인 투자를 인정하려고 하고 있음. (외국대학의 투자 허용)
-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나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작성자

- ◆ 양곤무역관 기현하
- ◆ 양곤무역관 곽희민
- ◆ 아대양주팀 오승희



Global Market Report 15-045

미얀마 총선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5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86926-13-0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www.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